제12강 초기 불교의 禪

특별 초청 강사
김형준 경전연구소 부소장

(1교시) J_stJo01_hjkim_031126_01

◎ 선(禪)이란 무엇인가

선이라고 할 때 禪과 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둘의 동기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禪은 '터를 닦는다'는 의미 외에도 중국어 특성 상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꿰뚫어 보다'란 의미로 '위빠사나'의 의미와 동일하다.

Zen은 '선'의 일본식 발음이 영어권에 소개되면서 등장한 단어로, 요즘 유행하는 '젠스타일'이란 말의 의미는 '소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선의 아주 일부분을 의미한다. 우리의 중심 과제는 번역 이후의 禪이다.

◎ 초기불교의 禪

초기불교의 철저한 수행방법이 바로 '禪'이다. 禪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마음**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위빠사나'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禪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본래 인도에서 禪이란 '버리면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였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었던 중국에서 禪은 '획득해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에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교가 그 가르침을 직접 담고 있기 때문이다. 추구하기 때문에 초조해지므로 추구의 대상을 상실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초기불교는 이러한 방법, 즉 애초에 끊어버림으로써 행복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이다. 이를 통해 획득된 행복은 '내가 스스로 제어해서 오는 충만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jhāna'는 '생각하다'란 의미 외에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란 의미도 지닌다. 고대 인도에서 '출가'는 '가장 완벽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2교시) J_stJo01_hjkim_031126_02

◎ 초기 경전을 통해 본 禪

그렇다면, 대왕이시어. 어떻게 해서 수행자는 戒를 구족하는 것일까요?

: 붓다가 대왕에게, 가장 완전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설명하기 시작함.

부끄러움을 알고 자애로워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 이때 연민은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의 하나이다. 無常, 苦 등의 철학적 내용은 이러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성스런 일군의 계율을 구족했을 때,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감'이 곧 禪이며, 이는 여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는 세상에 대한 갈망을 버리어 갈망이 떠난 마음으로 머물며, 갈망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 '갈망'이란 것은 결국 탐(貪)과 진(瞋)이다. '탐'은 탐욕을, '진'은 시기함을 뜻한다.

성냄과 증오, 권태로움과 따분함, 들뜸과 후회, 의심

: 적당한 경지에 올라 다섯 장애를 확인한다. 이들은 모두 '버려야'하는 대상이며, 이들을 제거했을 때 환희가 생겨나며 기쁨이 생하고, 몸에서 안락감을 경험하게 된다. 안락감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은 '**삼매**' 곧 완전한 평화에 들게 된다.

初禪

(아직은)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을 지니지만 {다섯 장애를} 벗어남에 의해 생한 기쁨과 안락감이 있는 첫 번째 禪의 경지에 도달해 머뭅니다.

: 다섯 장애를 벗어나 기쁨과 안락감을 느끼는 상태.

제2선

마음이 집중을 얻어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그친 삼매에서 생하는 기쁨과 안락감 있는 두 번째 선의 경지에 들어가 머뭅니다.

: 초선에서 나아가 마음의 집중을 얻게 되는 단계.

제3선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이른바 성자들이 말하기를 "무관심한 응념으로 즐겁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의 경지에 도달해 머뭅니다.

: 무관심하면서도 몸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제4선

즐거움과 괴로움(苦)이 그침에 의해, 또한 이미 희열과 근심이 소멸하고, 무관심하고 맑은 응념의 상태인 네 번째 선의 경지에 들어가 머뭅니다.

: 몸과 마음이 순결해지고 이를 자각하는 단계. 고대 성인의 조건이다.

곧 知에 의한 통찰로 경험을 초월하고 몸이 맑아져 기민성이 회복된다. 이 단계에서 갖가지 신통을 경험하게 된다.

나아가 마음을 읽게 된다. 마음이 집중되고 맑아지며, 작은 번뇌마저 사라지는 상태에까지 이르면, 그러한 자는 '전생'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四聖諦'는 깨달은 뒤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한다(회고된 진리). 현상의 苦를 명확히 알지만 물러서진 않는다(苦諦). 내가 갈망하기에 괴롭다는 안다(集諦).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있음을 안다(滅諦). 이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 즉 팔정도를 안다(道諦). 이를 통해 마음은 욕망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 생존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며,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다시는 집착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u>참고 자료</u>

그렇다면, 대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수행자는 戒를 구족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대왕이시여, 수행자는 살생을 버리고 살생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채찍과 무기를 지니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고 자애로워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함하지 않으며… 허언… 모략… 거친 말… 희언… 초목이나 종자를 해함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고…

… 이 성스런 일군의 계율을 구족했을 때,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

이 세상에서 수행자는 눈으로 사물을 보고는 그 모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세세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눈이라는 감관이 제어되지 않을 때 갈망과 고뇌라고 하는 악하고 착하지 못한 법들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그에 대한 제어에 전념해 눈이라는 감관을 지키고, 눈이라는 감관에 대한 제어에 도달합니다. …
그는 이 성스런 감관의 제어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성스러운 일군의 계율을 구족하고, 성스러운 감관의 제어를 구족하고, 성스러운 응념과 바른 의식을 구족하고, 성스러운 만족을 구족하게 되었을 때, 숲이나 나무밑둥, 산악지대, 협곡, 동굴, 무덤, 황무지, 노천, 갈대덤불 등 고요한 장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는 탁발에서 돌아와 식사가 끝나면 결가부좌를 틀고 몸을 바르게 세우고, 응념을 앞에 둔 채 자리에 앉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갈망을 버리어 갈망이 떠난 마음으로 머물며, 갈망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성냄과 증오를 버리어 성냄이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일체의 생명을 이롭게 하며 연민하는 자가 되어 성내는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권태로움과 따분함을 버리어 권태로움과 따분함을 떠난 마음으로 머뭅니다. 맑은 생각을 지닌 자로서, 응념과 바른 의식을 가진 자로서 권태로움과 따분함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그는 들뜸과 후회를 버리어 마음이 들떠 후회하는 일이 없이 지냅니다. 내면이 평정해진 자가 되어 마음의 들뜸과 후회로부터 마음을 정화해 나갑니다.
그는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극복해 지냅니다. 모든 착한 법에 대해 의심없는 자가 되어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이들 다섯 장애가 제거됐음을 바라볼 때, 그에게는 환희가 생겨납니다. 환희가 생한 자에게는 기쁨이 생하며, 마음의 기쁨을 얻은 사람의 몸은 안락감을 경험합니다. 몸이 안락해진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은 {이윽고} 삼매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初禪] 그는 애욕을 떠나고 착하지 못한 법을 떠나며 (아직은)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을 지니지만 {다섯 장애를} 벗어남에 의해 생한 기쁨과 안락감이 있는 첫 번째 禪의 경지에 도달해 머뭅니다. 그는 실로 벗어남에 의해 생한 기쁨과 안락감으로 그 몸을 적시어 두루 닿게 하며 충만하게 하고 두루 채우니, 그의 몸은 어느 한 구석도 벗어남에 의해 생한 기쁨과 안락감으로 편만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제2선] 나아가 수행자는 {초선에서의} 거친 생각, 미세한 생각이 그쳐 내적으로 청정해지고 마

음이 집중을 얻어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가 그친 삼매에서 생하는 기쁨과 안락감 있는 두 번째 선의 경지에 들어가 머뭅니다. …

[제3선] 나아가 수행자는 {제2선에서의} 기쁨을 여읨에 있어 무관심이면서 응념과 바른 주의를 지니고 머물며,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이른바 성자들이 말하기를 "무관심한 응념으로 즐겁게 머문다"고 하는 세 번째 선의 경지에 도달해 머뭅니다.

[제4선] 나아가 수행자는 {제3선에서의} 즐거움과 괴로움(苦)이 그침에 의해, 또한 이미 {초선 내지 제3선에서} 희열과 근심이 소멸하고, 무관심하고 맑은 응념의 상태인 네 번째 선의 경지에 들어가 머뭅니다. 그는 그 몸을 맑고도 순결한 마음으로 편만시켜 앉아 있으니, 그 몸을 어느 한 구석도 맑고 순결한 마음으로 편만해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어 맑고 티없어 순결해지며 작은 번뇌조차도 여의어 유연해졌을 때, {그리고} 기민하게 대상에 응하며 견고하고 부동하게 되었을 때, 그는 知에 의한 통찰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알게 됩니다. '실로 나의 이 몸은 형태를 취하고, {지.수.화.풍의} 4대로 만들어졌으며,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며, 쌀과 죽이라는 {자양분의} 적집에 지나지 않는다. 영원하지 못하며, 노쇠하고 소모되고 분해되고 무너지는 성질의 것이다. 게다가 나의 의식이란 이 몸에 붙어 있으며 이 몸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 집중되어 맑고 티없어 순결해지며 작은 번뇌조차도 여의어 유연해졌을 때, {그리고} 기민하게 대상에 응하며 견고하고 부동하게 되었을 때, 그는 종종의 신변에 마음을 향하고 갖가지 신통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집중되어 맑고 티없어 순결해지며 작은 번뇌조차도 여의어 기민하게 대상에 응하며 게다가 견고하고 부동하게 되면, 그는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곧, 그는 다른 유정들이나 다른 이들에 대해 마음으로 통찰해 알아챕니다.
곧, 탐욕을 지닌 마음에 대해서는 탐욕을 지닌 마음이라고 알아채며, 탐욕을 여읜 마음에 대해서는 탐욕을 여읜 마음이라고 알아챕니다.
성냄이 있는 마음… 미혹을 지닌 마음… 위축된 마음… 평범한 마음… 집중된 마음… 해탈한 마음에 대해서는 해탈한 마음이라고 알아채며, 해탈에 이르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는 해탈에 이르지 못한 마음이라고 알아챕니다.

이처럼 마음이 집중되어 맑고 티없어 순결해지며 작은 번뇌조차도 여의고 유연해져 기민하게 대

상에 응하며 게다가 견고하고 부동하게 되면, 그는 과거의 생존상태를 기억해내는 지혜(숙주통)에 마음을 기울여 다양한 과거의 생존상태를 기억해 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맑고 순결하게 되며 티없고 작은 번뇌조차도 여의고 유연해지며, 기민하게 대상에 응하며, 게다가 (그 자체는) 견고하고 부동하게 되면, 그는 번뇌의 멸진에 관한 智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챕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챕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의 마음은 욕망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 생존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며,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된 자에게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생존을 받는 일은 없으며, 청정한 행위는 완성되었다. 할 일은 다 했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을 받는 일은 없으리라"고 아는 것입니다.

- 원시경전인 <<沙門果經 Samannaphala sutta>>에서 가려 뽑음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12강 초기 불교의 禪

철학과 97학번 K학생

1. 선이란 무엇인가?
사람들 중 禪과 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 둘의 동기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고 할 수 있다. 禪은 '터를 닦는다'는 의미 외에도 중국어 특성 상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꿰뚫어 보다'란 의미로 '비파사나'(분석해서 세밀하게 보다=관찰하다)의 의미와 동일하다. 인도어 번역 과정에서 音寫(음사)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경

우 하나를 택했다간 나머지 의미들은 버려지기 때문이다.

禪의 어원적 분석

어근 dhyai → ① dhyāna

→ ② jhāna

일본에선 禪을 'zen'이라 부른다. 요즘 유행하는 '젠스타일'이란 말의 의미는 '소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선의 아주 일부분을 의미한다. 우리의 문제 중심은 번역 이후의 禪이다.

2. 초기불교의 禪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할 무렵 붓다에 의해 '선'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종교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성립 시기에 대해 학계는 대략 기원전 5~6 세기로 보고 있다. 29세의 시기에 붓다가 출가하면서 역사적으로 '고타마 싯다르타'가 등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초기불교(원시불교)가 시작되었다.

붓다가 80세에 열반에 들고(기원전 383년) 제 1세대 제자들에 의해 교단은 약 30년 정도 유지되었다. 이 시대를 '근본불교'라 부른다. 이후 아쇼카왕이 출현하고 여러 불교교단이 형성되면서 '부파불교'의 시대를 맞이한다. 기원 전.후로 하여 딱딱해진 교단문화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반발로 대승불교운동이 발생한다. 여기서 '근본불교'와 '부파불교'를 합쳐 '초기불교'라 부른다.

초기불교의 철저한 수행방법이 바로 '禪'이다. 禪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마음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禪을 행하여 '가장 완전한 형태의 마음'을 만든다. '비파사나'(마음을 알아차림)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뿐이다.

그러나 禪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본래 인도에서 禪이란 '버리면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였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었던 중국에서 禪은 '획득해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경우 행복이란 성취감의 다른 이름일 뿐 계속해서 또다른 성취감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禪은 중국이 경험하기 어려운 사상이었다.

현대에 명상이 유행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교가 그 가르침을 직접 담고 있기 때문이다. 추구하기 때문에 초조해지므로 추구의 대상을 상실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초기불교는 이러한 방법, 즉 애시당초 끊어버림으로써 행복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이다. 이를 통해 획득된 행복은 '내가 스스로 제어해서 오는 충만한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jhāna'는 '생각하다'란 의미 외에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란 의미도 지닌다. 고대 인도에서 '출가'는 '가장 완벽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3. 초기경전을 통해 본 禪(『沙門果經』중 발췌)

① ‘가장 완전한 마음’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② 완전한 마음을 얻기 위한 준비단계. 그중 하나가 ‘생식금지’이다. 자이나교는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을 알고 생식을 금지했다. 이를 알면 삼가하여 주저주저하게 되고 생각하여 최상의 행복에 이르게 된다.

③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 이 행복은 ‘有爲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다. ‘생식금지’를 통해 생명관이 투철해지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치밀해 진다. 이를 통해 나와 생명 전체의 동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소우주와 대우주의 결합은 내가 대우주를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④ ‘眼耳鼻舌身意’ 여섯 가지 감관을 제어하고자 함.

⑤ 禪의 시작.

⑥ 적당한 경지에 올라 ‘다섯 장애’를 확인한다. ‘다섯 장애’는 건강 진단 방법이기도 하다. 한 예로 사람이 들뜨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몸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선 보통 ‘네 가지 장애’를 말한다. 탐욕심과 시기심, 나태함과 들뜸이 이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기준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이 ‘禪’이다. 이는 태극의 중간 부분으로 물과 불의 자기 균형상태이기도 하다.

⑦ 다섯 장애 제거→환희→기쁨→안락감→즐거움→삼매. 마음으로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는 강력하다. 삼매는 ‘완전한 평화’로 여기선 네 단계로 구분된다.

⑧ [初禪] ‘다섯 장애’를 벗어나 ‘기쁨과 안락감’을 얻는다.
⑨ [제2선] 마음의 집중을 얻는다.
⑩ [제3선] 무관심하면서도 몸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⑪ [제4선] 몸과 마음이 순결해지고 이를 자각하는 단계. 동물들도 알아보는 단계이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로 고대 성인의 조건이다.

⑫ ‘知에 의한 통찰’로 경험을 초월한다.

⑬ 몸이 너무 맑아져 타고난 기민성이 회복된다. 이 단계에서 갖가지 신통을 경험하게 된다.

⑭ 마음이 집중되어 말고 티없이 순결해지면 작은 번뇌조차도 여의고 유연해져 기민하게 대상에 응하며 게다가 견고하게 부동하게 되면,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⑮ 더 나아가 '전생'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生死.變化의 전생을 보면서 '無常'에 눈뜬다.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四聖諦'는 깨달은 뒤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한다.(회고된 진리) 현상의 苦를 명확히 알지만 물러서진 않는다.(苦諦) 내가 갈망하기에 괴롭다는 안다.(集諦)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있음을 안다.(滅諦) 이에 이르는 깨달음의 길, 즉 팔정도를 안다.(道諦) 이를 통해 마음은 욕망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고, 생존의 오염으로부터 해방되며, 무명의 번뇌로부터 해방된다. 그리고 다시는 집착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정리: 'jhāna'는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 완전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파사나'가 강조되기 이전을 중심으로 초기불교에서 경전을 통해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禪에 대해 살펴보았다.

*질문 하나.
불교라는 생소한 종교를 (서구 사상의 또 하나의 근원으로서 비중이 높으며 동시에 현대화를 서구화와 동일시하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기독교에 빗대어 설명하시느라 기독교가 자주 언급된 듯합니다.(개인적으로 전 기독교와도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둘의 비교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념상의 비교문제는 차치하고 역사상 전개된 두 종교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비교에는 어느 정도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 이러한 인상을 야기한 듯합니다.
일례로 10월 1일 대승불교의 시대배경을 설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사회는 재가사회와 출가사회로 이분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사이에 이 예로 붓다의 관상을 본 예언자의 일화가 언급된다.) 기독교의 경우를 살펴보자. 기독교는 종교 자체 내의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역적 힘과 더불어 교리를 세속에 전파하고 관리하는 세속적인 힘도 갖추고 있다. 중세에 보여준 카톨릭의 권세란 암흑시대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막강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불교는 세

속과 성역이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위의 비교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초기불교와 중세기독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선 누구나 손쉽게 가치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엄정한 비교를 위해 초기기독교를 고찰한다면 둘 사이의 가치판단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교단의 초심은 순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교간의 우열을 다투는 싸움에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되고 불교인들은 붓다가 되고 유교인들은 공자가 된다면 종교간의 다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유교는 역사적으로 국가이데올로기로 채택되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속세를 벗어나려 했던 불교는 이런 모습들을 그다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언제나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종교들에게 비난이 갈 것입니다. 저는 불교가 만약 기독교와 유교처럼 권력을 잡았다면 그 실태는 억압의 기제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둘.
위의 질문과 관련해서 불교가 역사적으로 (국가이데올로기로서) 드러난 적이 있는지, 그 실태는 어떠하였는지는 알고 싶습니다.

*질문 셋.
열반은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으로 나뉘어 집니다. 유여열반을 한 자도 몸이 없어지고 나서야, 즉 죽어서야 열반을 완성합니다. 언제나 ‘몸’이 말썽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없애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면 열반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유여열반을 한 자가 더 빨리 열반을 완성하기 위해 ‘자살’을 택한다면 열반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자살’이 만연하는 요즘 불교에선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을 제시합니까? 저는 ‘자살’의 문제는 불교교리 상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제12강 초기 불교의 禪

철학과 02학번 C학생

△禪

-한자의 뜻 그대로는 '닦다. 하늘에 제사지내다. 고요하다' 등의 의미가 있지만, 앞의 부수 示(시)의 뜻에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즉 '선'이라는 글자에는 '뚫어지게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11/24일 수업에서 했던 vipassana(위빠사나)의 '보다'와도 통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관찰'이라는 측면이 '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인도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그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거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음사'를 한다. 禪도 그러한 음사의 하나이다. '선'의 산스크리트어는 dhyāna 혹은 jhāna 이다. dhyāna의 어근 dhyāi에는 'to think ',' 사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 결국 ' 선 '은 세계를 혹은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알아챈다는 뜻이 된다. (jhāna → 禪 → Zen. Zen은 ' 선 '의 일본식 발음이 영어권에 소개되면서 등장한 단어로, 요즘 유행하는 zen style은 소박한, 담백한 스타일을 나타낸다.)
붓다 생존에 (B.C 463~383) '禪'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 일종의 '선 문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다. 원시불교가 jhāna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의 역사'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김형준 선생님의 논의는 대체로 원시불교, 특히 근본불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근본불교 시기의 부처님의 수행방식은 철저하게 禪의 수행법이었다. jhāna는 '완전한 상태의 마음'이며, 고대 인도에서 '완전한 마음'의 속성은 '맑음'이다. vipassana는 완전한 마음을 만드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완전한 마음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 '관찰'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vipassana이다.

△禪의 속성; 버리다. 놓다.

-선이 가진 속성은 '버리는' 것이다. 버리는 내용은 세상에 대한 갈망, 욕심 등이다. 그러나 버린다고 해서 다 잃고 허탈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행복감,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버리는 즐거움'에 대한 관념이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 '획득의 즐거움'에 대한 관념이 있다. jhāna의 '버리는'속성이 중국으로 전해질 때, 두 문화의 '즐거움'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쉽게 전해질 수 없었다. jhāna가 중국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道家의 영향이 있었다. 도가의 無爲自然과 같은 속성은 '놓다, 버리다'등의 관념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沙門果經 Samaňňaphala sutta>

그렇다면, 대왕이시어. 어떻게 해서 수행자는 戒를 구족하는 것일까요?
→ 붓다가 대왕에게, 가장 완전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설명하기 시작함.
부끄러움을 알고 자애로워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때 연민은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의 하나이다. 無常, 苦 등의 철학적 내용은 이러한 연민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성스런 일군의 계율을 구족했을 때,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 ‘내적으로 티없는 행복감’이 곧 禪이며, 이는 여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행복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는 세상에 대한 갈망을 버리어 갈망이 떠난 마음으로 머물며, 갈망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합니다.
→ ‘갈망’이란 것은 결국 탐(貪)과 진(瞋)이다. ‘탐’은 탐욕을, ‘진’은 시기함을 뜻한다.
성냄과 증오, 권태로움과 따분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들은 모두 ‘버려야’하는 대상이며, 이들을 제거했을 때 환희가 생겨나며 기쁨이 생하고, 몸에서 안락감을 경험하게 된다. 안락감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마음은 곧 ‘삼매’(이는 곧 완전한 평화)에 들게 된다.

初禪: 아직은 거친 생각을 지니지만, 위의 장애를 벗어남에 의해 기쁨과 안락감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러한 사람의 몸은 편만하지 않은 곳이 없다.
제 2선: 초선에서 나아가 거친생각, 미세한 생각이 그치고 집중을 하게 되는 단계.
제 3선: 기쁨을 여읜 무관심과 바른 주의를 지닌 상태로, 몸으로 즐거움을 느낀다. “무관심한 응념으로 즐겁게 머문다.”
제 4선: 즐거움과 괴로움(苦)이 그치고, 맑고 순결한 마음으로 머물게 된다.
이러한 ‘선’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탐욕을 지닌 마음에 대해선 탐욕을 지닌 마음임을 알아채고, 탐욕이 사라진 마음은 그 사라진 상태를 알아챈다. 해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탈한 마음에 대해 해탈한 마음임을 알아챈다. 마음이 집중되고 맑아지며, 작은 번뇌마저 사라지는 상태에까지 이르면, 그러한 자는 과거의 생존상태를 기억해 내는 지혜를 얻게 된다.

<질문>

1. 위에 나타난 ‘원시불교의 선’과 현재 한국불교에 있는 선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원시불교의 선’과 한국불교, 중국불교에서 나타나는 ‘돈오’라든지 ‘면벽수행’과 같은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중국적’인 사상인 것인가.
2. 팔정도를 배울 때, 첫째 단계인 ‘정견’에서 바른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곧 윤회의 내용을,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이었는데...
만약 불교를 전혀 믿지 않고, 불교적 수행법을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혹은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는가? 독실한 기독교신자의 경우나, 혹은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전혀 다른 식의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는가?